

완도군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나섰다

한-미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참여

생산연구단과 기술협력 업무협약

청산면 남동측 외해 대량 시험양식

완도군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해조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시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조류 바이오매스(Marine Macroalgae Biomass)는 바다에서 광합성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유기물 형태로 저장한 해조류 생물체·유기자원으로, 해양수산부와 미국 에너지부(ARPA-E)가 2029년까지 공동으로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최근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연구단과 해조류 외해양식 테스트 베드 구축과 운영, 기술협력·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외해양식 구조물 설계·구축 등 시험사업에 착수하고 안정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을 단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생산연구단은 수심 35m 이상 외해를 대상으로 수온, 영양염 등을 분석한 결과 해조류 외해 대량 시험 양식지로 완도군 청산면 남동측 해역을 선정했다.

완도군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넓은 외해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환수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연구단장이 최근 서울스퀘어에서 '해조류 외해 양식 테스트 베드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면적과 안정적인 해황, 풍부한 양식 기술 등을 갖춰 최적의 사업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한계에 직면한 해조류 양식이 연근해를 넘어 외해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검증하고 해조류 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생산연구단과 공동으로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탄소 흡수량 산정 체계 구축, 불

루카본 인증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이 국제사업의 거점으로 참여하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조류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 바이오 소재는 물론 화장품 원료, 블루카본까지 해조류 산업의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동계 훈련 잇단 유치…지역경제 훈풍

106개팀 참여 2만7000명 방문

영광군이 동계 스토브리그(연습 경기)와 전지훈련을 잇달아 유치하며 비수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훈련지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축구 고등부 11개팀, 415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에 돌입했으며 이어 중등부 12개팀과 초등부 20개팀도 순차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일 테니스 3개팀을 시작으로 12일에는

검도 45개팀, 농구 15개팀이 참가하는 스토브리그가 열려 지역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이번 동계대회와 전지훈련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등에서 약 2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참가 선수단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목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

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이같은 성과는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편리한 접근성 덕분이라는 평가다.

영광군은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을 포함한 축구장 5곳과 실내체육관 2곳, 실내외 테니스장 등 다양한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과 풍부한 지역 먹거리도 전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목포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0억원 돌파

전년비 158%↑…누적 23억원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인 2025년 한 해 동안 연간 모금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시행 첫해인 2023년 5억6700여만원, 2024년 6억9400여만원을 모금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0억9600만원을 기록했다. 누적모금액은 23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목포시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는 시민과 향우,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기부자 중심 정책 추진 ▲시민 체감형 기금사업 발굴 ▲답례품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시는 2025년 민간 기부 플랫폼을 도입해 기부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즌별 이벤트 운영과 추가 혜택 제공 등으로 기부자 만족도 제고와 참여 저변 확대에 주력했다.

또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대상으로 '목

포사랑패스'를 발급해 목포시연사박물관, 근대역사관 1·2관 등 대표 관광·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부자 예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목포시는 2026년에도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여성폭력 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행복방사 만인동락(萬人同樂) 운영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참전유공자 나라 사랑 장수 방한모금 지원 ▲유기동물 입양 꾸리미 지원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등 총 7개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보건·보훈·청년·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금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2026년 1월 기준 59개 업체, 91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흉어·나지젓갈·손질갈치·삼재고등어·김·한우 세트·목포사랑상품권·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품목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군, 남악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완료

무안군이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의 주요 관문인 남악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남악IC 진입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남악·오룡지구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안군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투입해 기존 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 노후 포장 구간을 정비하는 등 도로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차량

흐름을 저해하던 구조적 요인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 도로 이용 여건을 한층 끌어올렸다.

공사 완료 이후 해당 구간의 통행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지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일형 무안군 건설과장은 "공사 기간 동안 통행 불편을 감내해주신 군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도로 정비를 통해 남악과 오룡지구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에 '에너지 특화형 AI데이터센터' 구축

전남도·한전KDN 등과 업무협약

해남군에 에너지 특화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해남군은 최근 전남도정에서 전남도·한전KDN-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에너지특화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남에 에너지 특화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집적·관리해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AI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생산·소비·계통·저장(ESS) 등 주요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AI 분석·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협약에 따라 한전KDN은 에너지 특화 AI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해 에너지 데이터 수집·관리,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민간 공유와 활용 측진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한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부지 개발과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서남해안기업도시에서는 부지를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력데이터 수요기업, 벤처기업 유치에도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